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법으로 보호될까



박 상 오 변호사
콘텐츠 법률 산책

대중에게 친숙한 저작물인 영화, 드라마, 소설, 웹툰 등과 달리 실용적·기능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실무에서 해당 대상의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특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저작물성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돼 소개한다.

해당 사안은 골프장 코스 설계업을 영위하는 A사가 스크린골프 사업 등을 영위하는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 A사는 “자신이 설계한 도면에 따라 만들어진 골프코스의 영상을 활용해 B사가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제작한 행위는 자신의 저작권(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그리고 1심(서울중앙지법)은 A사의 골프코스 설계도면을 ‘건축저작물’로 인정하면서 A사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에 따라 조성된 골프장의 호수 등도 위태해져드라는 기능적 구성요소일 뿐으로 기능적 요소를 제외하면 그 형태, 배치, 조합에서 미적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에 해당 도면에 포함돼 있는 기능 또는 기술적 사상, 즉 아이디어와 분리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거나 그 기능적 요소 외에 창작성 있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3나2003078 판결).

항소심의 판단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에는 골프코스 설계의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 즉, 이 사건 각 골프코스에서 클럽하우스, 진입도로, 연습장 등 시설물과 개별 홀들의 배치와 함께 개별 홀에서 티잉그라운드, 페어웨이, 러프, 벙커, 워터해저드, 그린 등의 형태, 배치, 조합에 관한 사상이 표현돼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면서도, “기능적 저작물에 있

어서 저작권법은 그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성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즉, 서울고등법원은 위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창작성’을 부정한 것으로, 위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다른 골프코스 설계도면들의 경우에도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판결은 A사 등이 상고를 준비 중이므로 최종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저작권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대법원이 골프장을 무단 촬영한 후 그 사진 등을 토대로 3D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해 위 골프코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입체적 이미지의 영상을 제작한 다음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타인 성과 무단사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이 역시 함께 참고할 만한 판례라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오늘의 운세 4월 15일 (음 3월 7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투기성을 가진 돈의 유혹을 조심. 48년생 조상의 직업을 내 자식이 승계하니 경사이다. 60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모처럼 편안. 72년생 남의 일에 감 뇌라 배 뇌라 하지 않으니 조용. 84년생 도벽이 있는 이웃사촌을 조심.
- 소** 37년생 자선이 없으니 나이 드는 것이 서글프다. 49년생 태양은 그 자리에 있으니 아직 반전이 남아 있다. 61년생 아이디어가 생긴다. 73년생 승산이 없는 일에 계란으로 바위 치기이다. 85년생 사주불여관상 관상불여 심상이라 했다.
- 호랑이** 38년생 훌륭한 자녀와 직원이 있어 안락. 50년생 소금장사 나가는데 비가 내리는 격이니 조심. 62년생 평소보다 급할수록 돌아서 가라. 74년생 가는 사람 붙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했다. 86년생 모든 것은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
- 토끼** 39년생 지출이 많으니 절약 정신으로. 51년생 가족 간이라도 독불장군은 외롭기 마련. 63년생 지나친 사랑이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한다. 75년생 오후 5시 고속도로 운전 거칠지 않게. 87년생 팔자를 본다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안심임이다.
- 염** 40년생 문제 해결을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52년생 살찌는 것이 걱정되면 덜 먹도록. 64년생 젊은 날 공부 열심히 해서 운명이 개선되겠다. 76년생 잘못을 뒤집어쓸 수 있으니 물건정리를 잘해야. 88년생 모호한 태도는 금세.
- 뱀** 41년생 관성이 총을 맞으니 다들 일이 생길라. 53년생 무서운 병중에 도박도 있음이니 도박조심. 65년생 집안을 정리하고 준비하면 복이 온다. 77년생 운세가 호전되지 직장에 충실해지자. 89년생 돈은 좀 더 타나니 삶을 추구할 수 있다.
- 말** 42년생 바람피우는 습관이 아직 남아 있던 말인가. 54년생 베풀면 베푼 만큼 자신이 대에서 운을 향한다. 66년생 금전 운이 따르는 하루. 78년생 셀러라엔은 상사의 도움이 있다. 90년생 착한 일을 계속해서인지 인덕으로 복을 누리라.
- 양** 43년생 할 일은 하되 자식일에 간섭 마라. 55년생 불기운이 아직 남아있으니 매살나무를 심어본다. 67년생 창업은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변과 상의를. 79년생 공짜를 좋아하면 재물에 혹욕이 끼게 마련이다. 91년생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다.
- 원숭이** 44년생 종로에서 친구를 만나 영화를 보기로 한다. 56년생 분수를 알면 투자를 하지 않게 되니. 68년생 동업자와 의견이 합이 되어 매출이 늘는다. 80년생 사소한 인연이라도 뒤에서 험담하지 않도록. 92년생 과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인가.
- 닭** 45년생 문서운이 오지만 눈앞의 성과는 아니다. 57년생 쌓아둔 물건중 버릴 것은 버리는 것이. 69년생 주가가 변하니 식구와 인연도 결별 되어 고민. 81년생 인생사는 반복되는 수식체계. 93년생 이성을 만날 때 공짜나 망명된 생각은 실이 된다.
- 개** 46년생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풀어야 할 터. 58년생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는 하지 말아야 내가 편하다. 70년생 외로움보다 참기 힘든 건 그리움이라 했다. 82년생 역경을 극복하고 길하게 반등. 94년생 감정으로 창업하면 후회가능하다.
- 돼지** 47년생 때늦은 정의는 실현되지 못한 정의다. 59년생 잔뜩 짜부린 마음에 자식의 진급이 웃음을 준다. 71년생 봉사고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으니. 83년생 믿을 것도 실력이다. 95년생 젊음을 지나치게 믿고 약한 상대를 믿어볼이지 말 것.

한국만 거꾸로 가는 재생에너지



기지 수첩
차 현 정
(산업부)

고등학생 시절 열정적으로 학업에 임하며 성적이 좋은 친구가 있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취업의 선에 뛰어들어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걱정을 자주 털어놓곤 했다.

다행히 국가 장학금 제도 덕분에 친구는 무사히 대학 진학을 할 수 있었다. 물론 모든 학자금을 충당하기는 어려웠다.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이 노력할 수 있는 선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었으며 지금은 취업도 성공했다.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적절한 뒷받침이 없다면 그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

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라도 국가적인 제도와 지원이 없다면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세계적인 흐름임에도 한국만 유독 뒤처진다는 평가가 따른다.

CDP(Carbon Disclosure Project)가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국가로 드러났다. 한국 내 RE100 가입사 중 약 40%가 한국 내에서 RE100을 달성하는 과정에 장애물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가장 큰 장애물은 선택권 부족과 높은 가격, 제한적인 공급량이 꼽혔다.

심지어 같은 기업이라 해도 해외 사업장에서는 손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RE100 기업들

의 경우, 지난 2023년 국내 사업장에서 조달한 재생에너지의 양은 5094GWh인 반면 해외 사업장에서는 이의 2배 수준인 1만2573GWh를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걸고 신규 원전 설비 확충 및 재생에너지 속도 조절에 나선 바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영향이 커지면서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금이나마 커진 모양새다.

자국 내 재생에너지 지원이 원활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점점 엄격해지는 국제 사회의 탄소 감축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이 투입될 바란다. /hyeon@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무서운 병, 도박

얼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창 잘 나가는 야구선수의 통역 매니저가 도박에 빠져 야구선수의 적지 않은 돈을 도박금으로 탕진했다는 기사가 났다. 그는 축구 등 여러 스포츠에 대한 도박을 해왔는데 우리 돈으로 약 60억 원쯤 되니 돈의 액수도 액수지만 믿고 지냈던 절친과 다름없는 지인으로부터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마음의 상처도 적지 않다. 도박은 바람피우는 습보다도 나쁘고 더 무섭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도박에 빠지면 마누라도 팔아먹는다고 하지 않던가?

도박이라고 하면 화투나 카드 카지노에서 하는 게임 등을 우선 떠올리지만 권투나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서 승자를 맞춘다든지 하는 확률을 놓고 판돈을 거는 것도 도박이라고 할 수 있다. 투기 권이나 투기 닭의 승부에 판돈을 거는 것도 있다. 이익을 목적으로 상습적이며 사행성이 높은 중독적인 행위들이다. 어느 나라든지 사행성 경마나 도박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칙으로 하지만 법적으로 공인되고 허락되는 놀이문화로서 건전하게 육성하기도 한다. 막는다고 막히지 않는 인간의 욕구를 아는 까닭이다.

대부분 사행성 사업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카지노나 경마이며 로또와 같은 복권사업이 그러하다. 지금은 제도적으로 증권시장이 많이 정비되었지만 한때 시골 농부들이 소 팔고 땅을 팔아 주식에 투자했다가 졸딱 망하여 목숨을 끊는 일도 종종 있었다.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워낙 확률이 낮으므로 취미와 오락의 단계를 뛰어넘어 재물의 탕진은 물론 가정이 풍비박산 나기도 한다. 사주명리학에서 바람을 의미하는 관성(官星)이 충(衝)이나 파(破)를 받아 흔들려 있는데 재살財煞까지 들어와 있거나 십이운기十二運氣별성에서 목욕沐浴운기가 오면 필시 사행성 도박에 심취하게 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알과피를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알과피를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4		6 7				2
	3 9		5 6			4
		1				9 3
	1			3		4
	7					5
5	3					6
9 8			7			
	4	6 2		7 1		
7			1 6			5

6 3				9		7 5
9			7			4
		1		9 5	8	
1	6					4
		7			6	
	4				9	1
		3 9	4		5	
7				6		
3 5	6					9 8

5	8	9	1	6	7	8	2	7
8	1	2	6	7	9	5	7	6
9	2	7	4	5	1	8	6	6
1	9	8	7	2	3	6	9	7
6	9	2	8	9	8	7	2	1
7	2	8	9	8	6	2	1	9
8	6	9	2	1	2	1	9	8
2	7	1	9	5	8	6	8	2
2	8	6	8	1	2	9	5	7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1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16호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